

픽션게임

박덕규
소설가

그렇게 설명했는데도 날 의심하다니……. 그 사람 죽은 것하고 나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니가 그러네. 그 사람하고 결별하고 나서 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그 사람이 어딘가에서 혼자서 정말 열심히 소설을 쓰고 있다기에 만나고 싶어도 참았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설명할 때 잘 들으라고 했잖아요. 내 말이 이해가 안 되면 그때그때 질문을 하든지. 당신같이 주의가 산만해서야 어디 좀도독이라도 한 마리 잡겠소?

나롱씨는 우리 <드래곤 픽션클럽>의 메인 라이터였고 나는 에디터였어요. 둘이 동업자였다고 그랬잖아요. 응모된 원고를 다채로운 예술적 구조로 엮는 일은 나롱씨 몫이었고, 그걸 집필기, 일명 <모아레>에다가 넣어서 소설로 뽑아내는 일은 내 몫이었지요.

모, 아, 레. 명칭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러네. 모아레라고 하는 건 지난 세기말에 개발된 고속 3차원 사진기인데, 굴곡이 심한 모습을 촬영해서 단시간에 입체영상을 만드는 기술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나 참, 우리 집필기 모아레는 사진기가 아니라, 스토리를 넣어서 자동으로 소설을 완성하는 프로그램이니까.

가령, 머리 좋은 범인이 당신같이 아둔한 탐정을 굶려먹는 내용의 이야기가 있다고 칩시다. 이 이야기를 나롱씨 같은 사람이 좀더 치밀한 형태로 다시 설정해서 다양한 작품이 나올 수 있는 열린 이야기 형태로 만드는 일을 하지요. 이걸 모아레에다 입력하면 최대 101가지 소설이 담긴 전자북이 나와요. 동영상이 가미된 사이버픽션부터, 당신 같은 사람이나 노인들이 줄면서 읽는 판소리본 소설까지 그 안에 다 들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으흠!

또 문학특강을 해야겠네. 이게 다 나롱씨한테 주워들은 건데…… 간단하게 설명하죠. 문학의 시대를 크게 네 단계로 볼 수 있어요. 첫 단계는 구비문학(口碑文學) 시대, 두번째는 필사본(筆寫本) 시대, 세번째는 책문화 시대, 네번째는 시청각 시대. 예, 또…… 하나의 스토리가 있으면 그것을 시청각 매체에 적합한 형태로 변형.

확대해서 여러가지 유형의 전자북으로 출시하게 된 이 시대가 바로 시청각 시대. 하지만 아직은 책문화 시대의 책의 위력을 능가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는 편인데 우리 모아레만은, 입력된 500만편에 달하는 동서고금의 명작을 활용해서 최대 1억편의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니까, 각광을 받지 않을 수 없었지요.

처음에는 나롱씨가 초안을 잡아두고 있던 원고로 <드래곤 픽션클럽>이란 이름의 소설 전자북 시리즈를 출시하기 시작했지요. 그리고보니 당신하고 똑같은 탐정 얘기가 초창기 시리즈물 안에 있는 것도 같군요. 그때도 한번 위기가 있었지요. 성공한 건 초기 세 종뿐이었고, 그 후로 낸 열 중 이상이 모두 제자리걸음이었지요.

모아레의 기능이 크게 확장되면서 우리는 독자들이 직접 쓴 이야기로 소설을 엮기 시작했고, 이게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지요. <이천만년 동안의 사랑>, <쥐포혁명>, <금강산의 비밀>, 이런 소설들 알죠? 쓰레기 같은 낙서나 일기가 줄지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전자북으로 둔갑하니까, 그야말로 신의 손 아니겠어요? 많이 팔린다고 해서 쓰내기 원작자들하고 분쟁이

일어날 게 없어요. 우리는 언제나 푼돈 매절로 원작을 사들이기만 하면 됐으니까. 일년에 간신히 장편소설 한두 권을 발표하면서 명맥을 유지하던 일명 <원고지 전사>들이 완전 도태되고 대신, 소설 스토리 작가가 양산되기 시작한 게 바로 지난 10년, 우리 <드래곤 픽션클럽>이 가장 활개를 치던 때였지요.

아니, 참, 내가 뭘 어쨌다고 이리시나. 결별을 먼저 선언한 쪽은 나롱씨였다니까. 이유는 글썄, 소설 쓰고 싶다는 거예요. 나롱씨의 스토리 구성력은 눈에 띄게 타성에 젖어갔고 <드래곤 픽션클럽>은 당연히 독자들로부터 멀어지게 됐으니까, 결별은 예정된 것이기도 했지요. 게다가 모아레의 집필 기능을 능가하고 거기에 동영상 기능이 한층 가미된 집필기가 미국에서 개발되었고, 그것은 특히나 번역 면에서 우리 것을 당장 압도할 수준이었지요. 나롱씨 후임으로 온 하은씨를 활용해 새로운 소설 전자북 시리즈를 출시해 버려 보았지만, 우리는 이제 자서전 따위를 대리집필하는 수준밖에는 되지 못하다는

걸 깨달았지요.

헛, 또 시작이야? 나이, 35세, 직업, 프로그램 판매업. 주소…… 무슨 얘기가, 이거? 나는 소설 쓰겠다는 사람을 도와준 적은 있어도 방해한 적은 없는 사람이야. 값싸게, 무수한 집필가 지망생들에게, 자기가 창작한 간단한 스토리만 입력하면 세계 명작 수준의 소설을 최대 101가지까지 생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해 왔지.

그것 때문에 무명 소설가 나롱씨가 자살했다고 해서, 그걸 내가 책임져야 한대구?

아, 그렇군. 당신처럼, 틀림없는 자살의 비밀을 공언히 캐고 있는 한심한 형사 얘기를 나롱씨가 구성한 적 있지. ❖



미래의 책 풍경

책장 넘기며 읽는 '전자책'으로 즐긴다

오애리 · 문화일보 국제부 기자

1945년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 과학담당 보좌관이었던 베네버 부쉬는 컴퓨터와 기능이 비슷한 세계 최초의 전자책 '메멕스'를 디자인했다. 그러나 이 책은 책상만한 크기에 엄청나게 무거워서 실용화되지 못했다.

최근 미국 시장에 선보인 전자책 소프트웨어, 로켓 북, ED 데디케이티드 리더 (Dedi-

cated Reader)는 단말기가 작고 가벼우며 기능도 뛰어나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전자책들은 스크린 상에서 책장을 한장씩 넘겨가며 읽을 수 있고, 페이지의 일부분을 확대하거나 읽을 곳을 표시해줄 수도 있다. 물론 가격이 아직 비싼편이고 배터리 용량도 충분하지 않은

단점이 있다. 업계에서는 기능을 좀더 보완하면 향후 5년 내에 전자책이 대중화되리라 본다.

지난 11월 소프트북 프레스사가 첫선을 보인 전자책 '소프트북'은 하드커버 종이책보다 약간 작은 크기. 한쪽에 가축 표지가 붙어 있어서 고풍스런 책 느낌이 난다. 스크린 크기는 20.3×15cm이며 무게는 1.4kg으로 약간 무거운 편이다. 단말기 가격은 299